

# 9

##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형 자원 개발

김 지 훈

계명문화대학 교수

[jhkim@kmcc.ac.kr](mailto:jhkim@kmcc.ac.kr)

# 목차

1. 서론
2.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
  - 2.1 국가도서관의 변화
  - 2.2 장서개발의 변화와 디지털 자원
3.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 3.1 포지셔닝에 의거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
  - 3.2 도서관 관련법에 의거한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
  - 3.3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자원개발
4. 결론

## 1. 서론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사회가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래된 디지털환경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임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중요성은 부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디지털 환경은 도서관이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을 최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다.

디지털 환경이 가져다준 도서관의 변화에 결정체로 나타난 것은 '디지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장서의 디지털화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범위를 디지털 환경에서 작용하도록 확대하고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표방하여 구축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장서를 구축함에 있어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을 동시에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도 아날로그 자원에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소장자료 목록이나 초록정보서비스와 소수의 원문정보와 외부의 디지털 자원으로 링크서비스를 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통합된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을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아날로그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어 물리적 환경에서 아날로그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Pearce, Cathro and Boston 2000).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러한 통합정보서비스의 개념을 인지하고, OPAC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학위논문, CD-ROM 등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 주제 게이트웨이, SDI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기록 확인, 도서관 안내정보, 의견이나 자료구입신청 등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이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단일 인터페이스로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달려있겠지만, 전자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후자는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도서관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장서개발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기술은 도서관이라는 실제공간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

로 이동시키고 아울러 대부분의 인쇄형인 아날로그 자원 중심으로 유지해온 장서에 디지털 자원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접근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소장에서 접근으로 이동을 촉진하여 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가상공간에 대한 환상은 TV가 생기면서 영화가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오관처럼 오히려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초고속으로 보급되는 현재 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과 동시에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상쇄되고 있으며, 종이 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디지털 자원의 증가와 함께 인쇄자료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이 지속되어 도서관의 장서는 아날로그 장서와 디지털 장서를 혼화(blending)되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도서관의 장서와 밀접한 주제인 장서개발은 도서관 업무의 첫 단계로서 도서관이 정보자원을 계획·선택·수집·정리·구축·평가·관리 및 보존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장서개발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장서로 편입될 정보자원의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장서는 주로 인쇄물과 시청각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수준과 범위를 산정하여 최적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장서의 대상이 디지털 자원으로 변화 및 확대됨에 따라 장서개발에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서개발은 도서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든 도서관은 설립주체와 목적, 이용자의 범위, 서비스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장서개발정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관종별 도서관은 장서로의 편입잠재력을 가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서관도 그 사명과 역할에 걸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이 될 만한 모든 종류의 정보자원의 개발하여 장서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장서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정보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에 입각하여 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장서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남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개발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

### 2.1 국가도서관의 변화

국가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서비스해 온 대상은 학습자 또는 연구자이다. 이는 국가도서관의 입법범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

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용자가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도서관의 서비스가 엘리트주의적 모델이 정당하지 않으며,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변화는 국가도서관의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예로 전통적으로 국가도서관의 공간은 장서를 저장하거나 독서실 형태를 취했으나,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공적인 공간을 학습공간 외에 전시공간,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용자의 확대는 국가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아날로그 장서에서 디지털 장서로의 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로의 장서변화는 국가도서관의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참고서비스, 개별화된 인터페이스, 다운로드가 가능한 미디어를 제공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도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의 온라인 이용자들의 웹이용 방식이 과거의 이용자와 달리 참여적이고 협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도서관2.0'이라는 새로운 도서관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데, 도서관2.0의 기본 의도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관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2.0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도서관 공간을 가상적이면서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상호작용적이고 협력적이며, 물리적 및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로서, 도서관이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고 기존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Casey and Savastinuk 2006).

국가도서관이 비록 참여와 협력의 관점으로 보아 서지통정이나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도서관2.0의 개념적 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실 도서관2.0에 대한 논의와 활동은 대부분 공공,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주로 집중된 반면 국가도서관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도서관의 업무가 최종이용자와의 일차적인 관계보다는 국가유산, 납본, 국가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 측면도 있고, 그 이용자 범위가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록 대규모 정보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은 도서관2.0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다. 비록 애들이 가득찬 풀장에 어른이 들어가는 위험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최근 국가도서관은 Facebook이나 Second Life를 만들거나, 목록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vensson 2007).

한편 디지털 형태로의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장서로의 이동과 확대는 국가도서관이 국가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국가도서관이 무엇보다 가장 기여해야 할 부분

으로서, 웹으로 이용 가능한 국가적인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장서, 국가서지, 잡지색인,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위해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 OPAC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전문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은 대규모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 2.2 장서개발의 변화와 디지털 자원

도서관은 장서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선별적 수용할 수도 없다. 다만 도서관은 정보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장서와 이용자 사이에서 훌륭한 중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과 이용자의 변화와 특성을 잘 파악하여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도서뿐만 아니라 신문, 지도, 팜플렛, 그림 등의 인쇄형자료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의 아날로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하여왔다. 그러나 정보자원의 변화는 장서개발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컴퓨터 기반 정보자원이 빠르게 장서에 포함되었으며, 실제로 전자저널이나 전문DB와 같은 디지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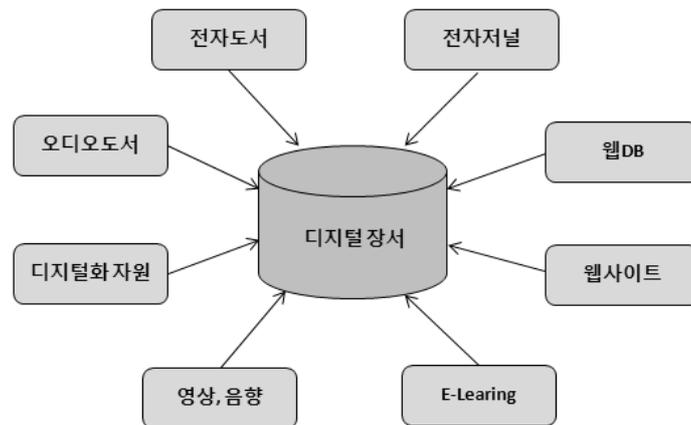
디지털 자원의 출현 이전의 장서개발과 관련한 주제는 대체로 장서정책, 자료선택, 장서관리, 예산과 재정, 이용자 요구 평가, 장서이용연구, 장서의 사정 및 평가, 자원공유 및 협력 등을 포함하는 장서기반 활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장서개발연구를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자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1990년대 중반부터 장서개발현장에서 디지털 자원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즉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자원의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웹이 출현과 함께 장서개발은 장서를 자관의 소유에서 이용을 위한 원격자원의 접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도서관 장서에서 인쇄자료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상대적인 가치비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출판형태로 나타난 디지털 자원은 과거와 달리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장서관리는 전통적인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합성해야 되며, 오프라인 장서는 도서관 서가나 저장소에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용율은 낮지만 유물적 가치를 가진 개체이거나 디지털화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되거나(Atkinson 1998), 도서관장서에 디지털 자원의 중요성이 인쇄물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제시되었다(Younger 2002). 또한 디지털 자원을 장서로 편입시키기 위해 장서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자원의 가치와 필요성이 제시하고 웹기반 전자도서관을 위한 장서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Kovacs and Elkordy 2000).

이처럼 장서개발에서 중요한 축으로 대두된 '디지털 자원'을 어의적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디

지털(digital)은 '전자(electronic)'와 혼용이 되고 '자원(resources)'은 '정보(informations)', '자료(materials)' 또는 혼합어로 '정보자원', '정보자료' 등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자원은 디지털 정보, 디지털 자료, 디지털정보자료, 디지털 정보자원, 전자정보, 전자자료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용어가 그 나름의 개념이나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뿐만 아니라 접근의 대상이 되면 '장서(collections)'로 받아들여 '디지털 장서'로 차별화시켜 장서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원은 생성형태에 따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나타난 '태생적 디지털 자원', 아날로그 형태(대체로 인쇄형태의 자료이나 일부 시청각 자료가 포함됨)의 자원을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한 '후생적 디지털 자원',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복합적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과 '온라인 디지털 자원'으로도 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분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디지털 자원은 내용이나 매체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자잡지(e-journal), 전자도서(e-book), 오디오도서(audio book), 웹DB, 웹자원, 영상 및 음향자료, 이러닝 콘텐츠 등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원이 도서관이 소장가치를 가지고 장서로 편입되면 <그림 1>과 같이 디지털장서로서 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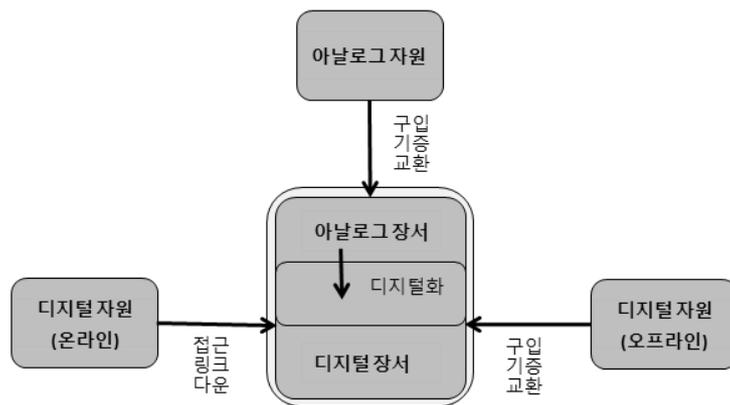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 장서로서의 디지털 자원

그러나 일부 디지털 자원은 라이선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한다는 것은 장서에 대한 기존의 어의적 관념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에서 '문헌'에 대한 의미를 '서적이거나 문서'를 넘어 '인류가 생산한 모든 종류의 정보 자료'로 이해하는 만큼의 가치전환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

불문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 대다수 도서관이 디지털 장서에 포함하는 이유로는 디지털 자원 자체를 소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도서관을 수용한 다음 별 다른 노력없이 디지털 도서관의 면모를 그나마 보여준 공로에 보답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최근 상업적 정보제공자의 독과점적 횡포로 배신을 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보다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보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접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소장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소장 가능한 디지털 자원(대체로 CD 또는 DVD 매체로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의 장서개발정책과 유사하게 다루면 되겠지만,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는 도서관 차원에서의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 자원이 소장가능하건 아니면 접근만 가능하건 간에 라이선스 과정을 거친 디지털 자원은 이용자에게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는 과연 접근이 소장에 상응할 만큼 장서개발에서 가치가 있는지, 도서관 장서에 일시적인 접근만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구적인 소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디지털 자원을 구성하거나 담고 있는 디지털 형식이나 매체의 수명주기를 위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기존의 아날로그 장서개발에 부가하여 인쇄잡지의 구독취소와 전자잡지의 계약의 확대, 웹DB 및 웹자원의 장서화,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등으로 디지털 장서개발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은 장서개발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도서관 장서개발 구조

이처럼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아날로그 장서에 부가하여 디지털 자원으로의 접근, 링크, 다운로드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의성과 보존을 위해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까지 확대

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며, 디지털 장서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2.1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서로 구성하는데, 이동가능한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소장 가능한 오프라인 디지털자원(대체로 CD, DVD 등의 디스크형태로 나타남)은 수집을 하여 소장하고 있다.

### 2.2.2 온라인 디지털 자원

라이선스를 통해 접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전자잡지, 웹DB 등)은 개별적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요구하지 않는 웹자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 서버에 다운로드하여 아카이빙하고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웹자원은 접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만큼 논란이 있는데, 광대하고 유동적인 웹자원의 평가, 선택 및 보존의 문제, 상업적인 포털사이트와 차별성 및 활용성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디지털 장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2.3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이것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 장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유산적 가치가 있거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날로그 장서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이용정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이용을 위한 보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3.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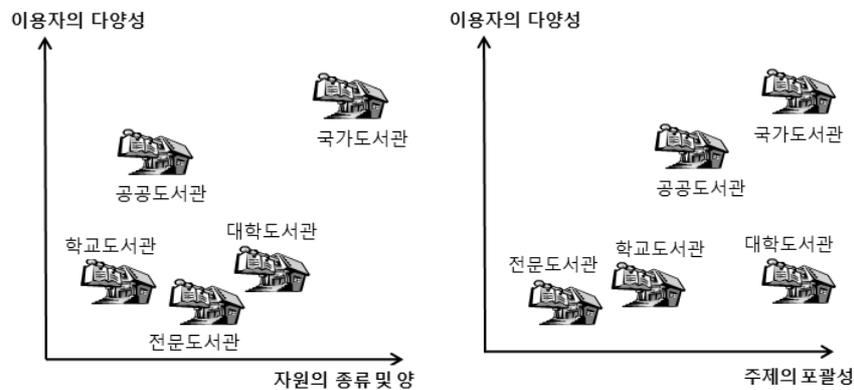
### 3.1 포지셔닝에 의거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개념은 원래 광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소비자의 마음 속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냐에 관한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닝은 마케팅 측면에서 대상소비자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쟁대상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로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의 포지셔닝은 도서관에 대한 이용

자의 이미지로서,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장서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국가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나 기대심리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보요구라도 수용 가능하도록 준비된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자, 정보자원, 서비스는 포지셔닝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국가도서관의 이용자는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으며, 정보자원은 국가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주제적 포괄성과 유형의 종류와 양과 관련될 수 있다. 물론 정보자원의 질적 수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가도서관 장서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용자의 지적 수준과 선호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포지셔닝 지표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는 신뢰성(정확한 정보제공), 응답성(즉각적인 정보제공), 접근성(정보접근의 용이성), 유형성(물리적 환경)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 지표 중에서 이용자와 정보자원이 포지셔닝 형성에 일차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는 부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은 이용자의 유형, 정보자원의 종류와 양, 주제의 포괄성을 다른 유형의 도서관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그림 3>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3> 국가도서관 포지셔닝 맵

포지셔닝 맵에서 이용자의 다양성은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로서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이용자 그룹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자원의 종류 및 양은 인쇄물 및 시청각자료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전자도서, 오디오도서 등을 포함하는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웹DB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다양성과 장서수를 의미하며, 주제의 포괄성은 보유

한 장서의 주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위에 제시된 포지셔닝 맵은 당연히 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반영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심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포지셔닝 맵을 통해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이용자의 다양성에 있어서 학습수준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종류 및 양, 주제의 포괄성에 있어서 모두 높은 포지션에 있으므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주제역영의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우수한 장서개발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국가도서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로도 파악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은 나라마다 기원과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자국의 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공통분모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더라도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UNESCO의 “국가도서관서비스의 입법지침”에서는 국가도서관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Lor 1997).

<표 1> 국가도서관의 개념 구분

국가도서관 개념의 구분	발전단계	주요 이용자	전략적 강조	국가도서관 형태
유산	전통적(선진국)	학자 및 연구자	장서	전통적인 국가도서관
하부구조	현대적(선진국)	도서관	국가리더십	현대적인 국가도서관
포괄적 국가서비스	개발도상국	일반 국민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 전달	국가도서관 서비스

이 개념구분에서 유산(heritage)은 장서의 구축과 보호에 강조를 둔 전통적인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자국의 여러 도서관에 대한 리더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며, 포괄적 국가서비스(comprehensive national service)는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발전단계, 주요이용자 및 기능에 따라 국가도서관의 정체성을 형상화시키고 있지만, UNESCO에서는 위의 각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도서관을 국가도서관으로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원받으며, 자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자국과 관련있는 문헌유산(주로 모든 형태의 출판된 자료)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용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서관리, 하부구조 제공, 자국의 도서관 및 정보체계에서의 조정활동, 국제적인 협력, 리더십의 수행을 통해 그 나라의 도서관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하며, 이러한 책임은 대개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Lor 1997).

또한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 IFLA의 국가도서관 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장서
    - 1.1 법정납본을 통한 국가의 출판물(인쇄 및 전자자료 모두) 수집
    - 1.2 필사자료, 기록물, 지도, 그림, 사진, 전통적 혹은 디지털 형식의 시청각자료로 된 국가 문화유산 수집
    - 1.3 자국어 및 자국에 대한 외국출판물 수집
    - 1.4 외국 출판물의 폭넓은 장서유지
  2. 접근
    - 2.1 국가서지레코드 생산
    - 2.2 연구,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한 장서에 최적의 가능한 접근 제공
    - 2.3 타당성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장서에 원격 접근 제공
    - 2.4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통해 주요 서비스(예: 참고, 서지, 대출) 제공
  3. 보존
    - 3.1 전자 장서를 포함한 국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
  4. 협력
    - 4.1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도서관정보업무 참여
    - 4.2 문헌정보연구에 참여
  5. 경영
    - 5.1 혁신적인 기술과 적절한 경영방법으로 효율성 보장
    - 5.2 직원 개발
- 추가적인 업무
1. 도서관교육센터 제공
  2.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포럼 수행(Poll and Jönsson-Adrial 2006)

UNESCO의 정의와 IFLA의 사명과 목적에서 볼 때,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형태의 출판물과 자국관련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한 폭넓게 외국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두고 있다. 특히 자국출판물의 망라적이고 완벽한 수집을 위해 납본제도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 및 국제적인 도서관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리더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 입법부의 국회도서관, 사법부의 법원도서관을 국가도서관의 범주에 넣고 있으나(『2008 한국도서관연감』에서는 국가도서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따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디지털도서관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한다), UNESCO의 정의와 IFLA의 사명과 목적에 비추어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법 제18조와 제19조의 내용과 조화됨을 볼 수 있는데, 제18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19조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국가도서관은 법적지위에 기반하여 포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며, 국내 다른 도서관을 선도하는 각종 리더십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 및 국제적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과 차별적인 국가도서관만의 특수한 포지셔닝 지표로는 법적지위,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 리더십과 조정, 국제적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장서개발과 관련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 지표는 법적지위에 기반한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인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즉,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비용 대 효율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국가도서관은 포지션에 따라 정보자원을 보편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납본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생산자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수집된 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유용한 유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보존체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의 총괄적인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2 도서관 관련법에 의거한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

장서개발은 정보자원의 수집 및 평가, 정리, 구축, 유지보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집의 범위는 이용자의 요구와 재정적인 문제간의 최적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만, 국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수집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도서관 장서는 모든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원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가도서관의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앞의 국가도서관 포지셔닝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현재 세대에게 그 정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사회의 구축을 선도하고 나아가 그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도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법은 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 및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이 해당된다. 이들 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의 대상범위와 납본에 대한 부분이 장서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인쇄형태를 포함한 아날로그 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 문제될게 없으나, 출판환경으로 변화에 따른 디지털자원에 대해서는 비록 최근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법률 제9529호, 2009. 4. 22)은 지적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장서보존 특히 디지털장서로의 보존과 관계있다.

먼저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도서관의 장서로서의 '도서관자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

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장서구성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이전의 법과 비교해 보면, 변화하는 출판환경을 고려하여 제2조2항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보자원의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관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이 처럼 도서관법 제2조에서 도서관자료에 대해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0조에서 도서관 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하면서 유독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 2009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도서관자료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전자자료로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록 장서로서는 인정하되 납본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확대되는 추세로 보아 국가도서관 장서의 대상으로서 국가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에 대한 납본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납본의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되기 전까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납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고, 차후 현행 도서관법 개정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약보, 지도 및 가제식(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즉,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에서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온라인 출판물에 대해 납본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출판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증가되면서 도서관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서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한 내용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에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의 당위성을 나타낸 것으로 장서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 법적 해석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납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적 접근보다 영구적 소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저작권법의 ‘제2관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 중 제31조와 관련이 있는데, 국가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복제하여 보존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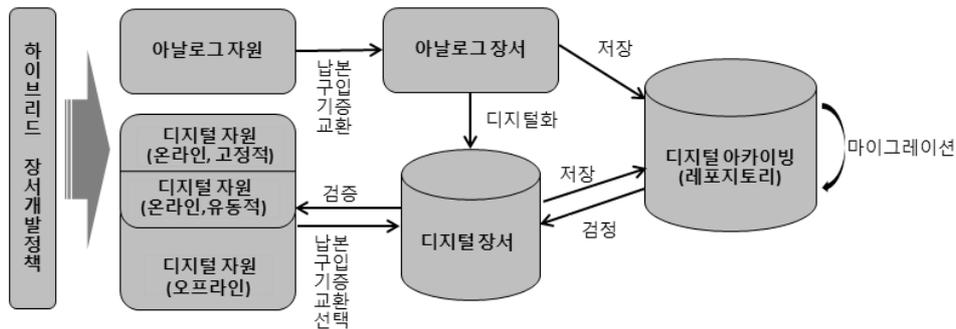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위의 내용을 토대로 우선을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을 확대하여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에 힘쓰며,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자원 중 전자저널, 전자도서 등 정적인 디지털 자원을 남본에 포함시키고, 웹자원과 같은 동적인 디지털 자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3.3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자원개발

국가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선도적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유산을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은 포괄적인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하여 장서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 체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체계

국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의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남본체도를 근거로 포괄적 수집을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자원이 장서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입, 기증, 교환으로 장서를 수집하여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원 중 웹자원은 수집지침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원은 형태에 따라 장서로 편입하여 현재의 이용성에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특히 아날로그 장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미래의 이용성을 위해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유동적인 디지털 자원은 정기적인 검정을 통해 지속적인 갱신을 수행하고 모든 정보자원이 디지털형태로 아카이빙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아날로그 자원에 대한 장서개발은 그다지 어려움은 없겠으나, 다음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장서개발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 3.3.1 전자잡지 및 웹DB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일등공신은 전자잡지와 웹DB임은 분명하다. 사실 태생적 디지털 자원의 부족과 소장장서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디지털도서관은 한계를 넘게한 전자잡지와 웹DB는 이용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환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의 허장성세를 간파하지 못하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소장중심의 가치관을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장서개발의 외연을 넓히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장서라는 실물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어 출판사(agggregator, DB제공업체 포함)에 종속되는 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은 접근도 중요하지만 소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 자원제공 대상인 출판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국내업체인 경우 납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외국업체인 경우 국내의 상업적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협상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여 도서관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의 책임자로서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 3.3.2 웹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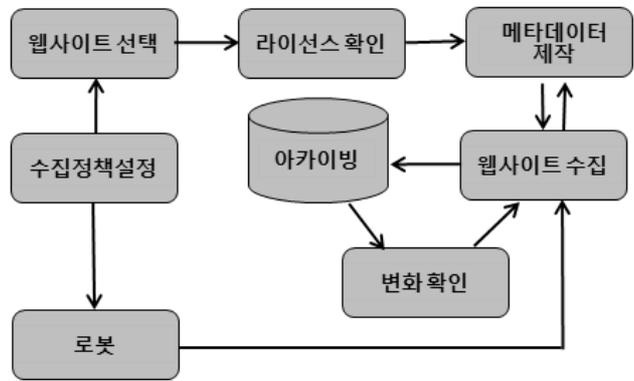
웹자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잡지, 회색문헌, 통계데이터, 정책과 기준, 법령과 제도, 전자게시판 등이다. 웹자원을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자원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접근과 이용에 그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장기적인 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웹자원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이제 웹자원은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장서의 대상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웹자원은 휘발성 및 유동성이 강하고, 상업적인 검색엔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체 웹자원의 일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도서관은 품질있는 웹자원을 발굴하고 아카이빙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도서관의 주도로 웹자원을 보존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고, 웹자원 수집과 보존을 위한 OASIS를 수행하고 있다.

웹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은 웹자원의 특성에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선택적 아카이빙, 보편적 아카이빙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카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적 아카이빙 방법은 주제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우수한 사이트를 발굴하고 로봇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출판자와 협

상을 하여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웹사이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할 수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아카이빙은 로봇을 사용하여 낮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품질통제가 잘 안되고 로봇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누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은 선택적 및 보편적 아카이빙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고 권위있는 주요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선택적 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수집하는 보편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Phillips 2005).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수집은 개발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대하고 수준차이가 극명한 웹사이트의 특성과 자원의 망라적 수집과 유산으로서의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주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선택적 아카이빙을 수행함과 동시에 로봇을 통해 보편적 아카이빙을 정적자원에서 동적자원으로, 공공자원에서 민간자원으로 점진적으로 수집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그림 5>와 같은 체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하이브리드 웹자원 개발체계

## 4. 결 론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치는 도서관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도서관에게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반된 환경은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의 중심이 되기 위해 도서관은 지식의 보존과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인한 위기는 도서관의 더욱 장서의 포괄성과 다각화를 가속화시켜 장서의 외연을 웹자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도서관서비스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인 도서관 2.0의 개념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기능과 역할에 따른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의 첫 단계인 장서개발에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적지위에 기반하여 포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도서관은 장서개발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변화하는 국가도서관의 모습과 장서개발의 추이를 고찰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나 기대심리적 측면에서 포지셔닝 지표로 이용자의 다양성과 장서의 종류, 양 및 주제의 포괄성에 근거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주제영역의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우수한 장서개발을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도서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사명, 도서관 관련법적 측면에서 포지셔닝 지표로 법적지위에 기반한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선도적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유산을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도서관은 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위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원에 대해 소장과 접근에 대한 대결적 구도가 있긴 하지만, 국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성격을 달리하여 중요성을 견지하여 납본제도를 확대 적용하거나, 상업적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협상자의 입장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의 책임자로서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도서관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웹자원의 수집할 당위성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으로 웹자원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은 앞으로 장서로서 가치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현세대가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와 후세대를 위한 국가유산으로서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체계를 더욱 자세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지훈, 노진구. 2002.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를 위한 논리적 구조." 정보관리학회지, 19(2): 69-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cited 2009. 4. 10]. <<http://www.law.go.kr>>.
- 윤희윤. 2007. “디지털 장서관리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147.
-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tkinson, Ross. 1998. “Managing Traditional Materials in an Online Environment: Som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a Future Collection Managemen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2(1): 7-20.
- Casey, Michael E. and Laura C. Savastinuk.. 2006. “Library 2.0: Service for the Next-Generation Library.” *Library Journal*, 131(14): 40-42. [cited 2009. 4. 20]. <<http://libraryjournal.com/article/CA6365200.html>>.
- Casserry, Mary F. 2002. “Developing a Concept of Collection for the Digital Age.” *Libraries and the Academy*, 2(4): 577-587.
- Kovacs, Diane K. and Angela Elkordy. 2000. “Collection Development in Cyberspace: Building an Electronic Library Collection.” *Library Hi Tech*, 18(4): 335-359.
- Lor, P. J.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cited 2009. 4. 15].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0/001095/109568Eo.pdf>>.
- Pearce, Judith, Warwick Cathro and Tony Boston. 2000. “The Challenge of Integrated Access: The Hybrid Library System of the Future”, VALA2000: 10th VALA Biennial conference and Exhibition, Melbourne, Victoria, 16-18 February, 2000. [cited 2009. 4. 13]. <<http://www.nla.gov.au/nla/staffpaper/jpearce1.html>>.
- Phillips, Linda L. and Sara R. Williams. 2004. “Collection Development Embraces the Digital Age: A Review of the Literature, 1997-2003.”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8(4): 273-299.
- Poll, Roswitha and Christina Jönsson-Adrial. 2006.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Libraries: A list of possible indicators, taken from the new draft of the standard ISO 11620 and from practical examples tested by national or regional libraries. [cited 2009. 4. 10]. <<http://www.ifla.org/VII/s1/pub/s1-PerformanceIndicators2006.pdf>>.
- Svensson, Lars G. 2007. “National Web Library 2.0: Are National Libraries Ready for the New version?”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27(3): 91-95.

Younger, Jennifer A. 2002. "From the Inside Out: An Organizational View of Electronic Resources and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36(3): 19-37.